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7.3.20.(월) 조간	배포 2017.3.17.(금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신진창 중소기업과장(02-2100-2990)	담 당 자	최치연 사무관(02-2100-2991) 양병권 사무관(02-2100-2992) 서지은 사무관(02-2100-2836)	
	이형주 금융정책과장(02-2100-2830)		류병욱 사무관(02-2100-4286)	
	행정자치부 조성환 지역금융지원과장(02-2100-4280)			
	금융감독원 박상춘 저축은행감독국장(02-3145-6770)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(02-3145-7550)		송평순 팀장(02-3145-6773) 이창운 팀장(02-3145-7447) 이상민 팀장(02-3145-7552)	

제 목 :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

- 최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건전성감독 강화 추진
- 저축은행·상호금융·여전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(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또는 조기시행, 적립률 상향 등)
 -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감원 현장점검

1. 추진배경

- 최근 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모습
 -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과 달리,
 - 저축은행·상호금융*·여전사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다소 빠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되는 상황
- ※ 신탁조합, 농협조합, 수협조합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

< 가계대출 증감(행자부, 금감원 속보치 기준) >

(단위 : 조원)	'15년		'16년		'17년
		1~2월		1~2월	1~2월
저축·상호·여전 계	+23.7	+0.8	+44.8	+3.6	+5.6
저축은행	+3.5	+0.6	+4.6	+0.8	+1.0
상호금융*	+16.5	+0.0	+34.4	+2.1	+3.9
여전사	+3.7	+0.2	+5.8	+0.7	+0.7
은행 계(주금공 양도분 포함)	+78.3	+5.1	+68.7	+5.0	+3.0

* 새마을금고 포함

- 특히, '17.3.16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,
 -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뿐 아니라
 -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
- 그간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·추진하였으나,
- ➔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 필요

< 그간 제2금융권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 >

- (저축은행)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기준을 7%→8%로 상향('18.1.1일 시행 예정)
- 은행 등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적용*('17.4.1일 시행 예정)
 - * [현행] 정상 2개월 미만, 요주의 2~4개월 미만, 고정이하 4개월 이상 → [개선] 정상 1개월 미만, 요주의 1~3개월 미만, 고정이하 3개월 이상
 -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('18.1.1일부터 시행 예정)
 - 고위험대출(금리 20% 이상) 추가충당금(20%) 적립*('18.1.1일부터 시행 예정)
 - * 차주의 신용도·채무상환능력이 낮은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가중
- (상호금융)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*('17.3.13일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·금고에 시행, '17.6.1일 전체로 확대 예정)
- *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객관적 소득증빙 제출,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잔금대출 등에 대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등
 -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(LTV) 산정기준 강화('16.10.31일 시행)
 - * 비주택담보대출 LTV 총한도 : 80% → 70%, 기본비율 최저한도 : 50% → 40%, 가산비율 한도 10% → 5% 등

2. 주요내용

□ 저축은행·상호금융·여전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(각 감독규정 개정)

•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, 금리·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,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

- * (저축은행·캐피탈)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 → 20%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
- * (상호금융)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 →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
- * (카드사)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 가중 우려 →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

① (저축은행) 고위험대출(금리 20% 이상인 대출)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(당초 '18.1월부터 적용 예정)

-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%→50%로 대폭 상향*

- *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20%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,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30%(= 20% + 20%×50%)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
- 예) 금리 15%의 1천만원 대출(고정 분류) → 2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
- 금리 22%의 1천만원 대출(고정 분류) → 300만원(200만원 + 200만원×50%) 대손충당금 적립

② (상호금융)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,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%→30%로 상향*

※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탁조합, 농협조합, 수협조합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

- (현행)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(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) 또는 다중채무자대출(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)로서 '요주의 이하' 대출에 추가충당금 20% 적립
- (개선)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(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) 또는 다중채무자대출(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)로서 '정상' 및 '요주의 이하' 대출에 추가충당금 30% 적립

<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>

분류	현행	강화
①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	3억원 이상	2억원 이상
	또는	
다중채무자	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	(현행과 동일)
② 자산건전성	요주의 이하 대출	정상 대출 포함

※ ①+② 요건 충족시 고위험대출에 해당

* 정상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%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,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.3%(= 1% + 1%×30%)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

예) (현행) 일시상환 5억원 대출(정상 분류) → 5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
(개선) 일시상환 5억원 대출(정상 분류) → 650만원(500만원 + 500만원×30%) 대손충당금 적립

③ (여전사) 카드사 고위험대출(2개 이상의 카드를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에 대한 대출)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(30%) 규정을 신설

- 캐피탈사 고위험대출(금리 20% 이상인 대출)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(30%) 규정을 신설
- 여전사 할부·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*
- * [현행] 정상 3개월 미만, 요주의 3~6개월 미만, 고정이하 6개월 이상 → [개선] 정상 1개월 미만, 요주의 1~3개월 미만, 고정이하 3개월 이상

□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·조합·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현장점검(저축은행 5개, 상호금융 70개, 여전사 7개) 등을 통해 집중 관리

3. 향후 계획

□ 3월중 저축은행·상호금융·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예고(40일간)

- 규개위 심사,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'17.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

□ 금감원 현장점검은 6.30일까지 실시하되, 필요시 연장 추진

- ◇ 향후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,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
- ◇ 또한,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·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
 -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('16년 5.7조원 → '17년 7.0조원)하고
 - 10%내외의 中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(1조원→ 2조원) 및 취급기관(은행·저축은행 → 상호금융 추가)을 확대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